

IUVSTA-ECM/GM 회의 및 IVC-19 국제학회 참관기

부진호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진공학회를 대표하여 2013년 9월 6-1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IUVSTA-ECM 116차 회의(9월 6-8일), IUVSTA GM-18 회의(9월 11일), IUVSTA-ECM 117차 회의(9월 13일) 및 IVC-19 국제학회(9월 9-13일)에 참가하여 2016년 8월 22-26일 한국진공학회 주관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IVC-20 국제학회 준비사항을 보고도 하고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본인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진공학회를 대표하는 IUVSTA의 alternative executive councilor로 임명되어 매년 2회(주로 3월과 9월) 열리는 IUVSTA-ECM 회의에 참가해왔고 2010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IVC-18 국제학회 기간 중에 개최되었던 IUVSTA-ECM 회의에서 우리들의 한국진공학회가 유치신청을 했던 IVC-20 국제학회를 2016년 8월 한국진공학회가 주관하여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최종 결정하는 회의에도 참가하여 IVC-20 국제학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며 개최할지에 대한 발표를 하고 최종 투표를 거쳐 대한민국 유치가 결정이 되는 현장에도 있었다.

아울러 본인은 역사적인 제 100차 IUVSTA-ECM 회의를 한국진공학회가 주관 유치하여 2006년 9월 20-22일에 조직책임자로서 개최하였었고, 동시에 같은 기간에 ECM 100회 기념 특별 국제심포지엄을 조직하여 개최했던 현장에도 있었다.

IUVSTA(International Union for Vacuum Science Technique and Application; 진공 과학기술 및 응용

국제연합 - 이하 IUVSTA로 표기)은 1953년 6월 13일 벨기에 나무르 (Namur)시에서 그당시 세계 10개국의 진공학회가 국제연합을 조직하자고 결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점차 조직적인 기구로 발전하다 1963년 5월 2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제적인 기구로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전세계 30개국의 진공학회가 조직에 참여하는 거대한 국제연합으로 기초과학과 공학분야가 융합된 세계 유일의 조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며,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ICSU)의 Scientific Associate이기도 하다. IUVSTA의 가장 핵심 조직은 각국 진공학회에서 추천된 Councilor (3년임기)와 7명의 별도 선출된 본부임원 (각각 별도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동적으로 선임됨)으로 구성된 Executive Council이며, 이들 주요 임원들이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councilor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각 위원회에서 활동(어떤 위원회에 다수가 지원하면 회장이 조정을 하며, 1개 이상 여러 개의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이 가능함)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매년 2회의 미팅(Executive Council Meeting이라 부르며 약자로 ECM으로 표기함)을 하게 된다. 그리고 IVC 국제학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개최되는 General Meeting (IUVSTA-GM)은 주요 정책 및 재정(차기 3년동안의 예산 승인, 그리고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국가별 연회비 납부 규모에 따라 다른 투표수를 부여)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IUVSTA 내에는 8개 scientific 분과(2013년 ECM에



〈저자 약력〉

부진호 교수는 1993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표면 및 재료화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지냈고, 독일 Bonn대학교 화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였다. 미국 Cornell 대학교 물리학과와 초청연구원으로 지냈고, 1997년부터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한국진공학회에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사업이사, 국제협력위원장, 장기발전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부회장 및 운영이사장을 맡고 있다. (jhbo@sksu.edu)



서 Bio-Interfaces분과 신설을 승인하여 올해부터는 9개 분과가 있음)가 있으며, 각 분과의 위원들은 각국 진공학회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분과 위원장과 간사 등 주요 임원직은 위원들의 투표와 본부 임원의 선임에 의해 임명된다. IUVESTA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uvsta.org)를 참고하기 바라며, 특히 젊은 과학도나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예를 들면 젊은 진공과학도에게 전세계 회원국에서 장단기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World Transfer Programme, IVC 국제학회 개최시 학생들에게 시상하는 우수 포스터상, IUVESTA 주관 워크숍 및 school 또는 국제학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젊은 학생연구자들을 지원하는 IUVESTA-Elsevier Student Awards 등)를 잘 활용하면 우리 미래의 진공과학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IUVESTA-ECM 116차 및 117차 회의 및 18차 GM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116차 IUVESTA ECM 회의 (9월 6-8일)

주요 결정사항

- 포상 및 장학위원회 : IVC-20시 학생 포스터상 지원액으로 4,500유로 결정.
- 재정위원회 : 2014년부터 KVS의 연회비가 750 유로에서 1,050유로로 증액됨을 통보 받음. (단, 2013년 이후 부터 현재 5 shares & 3 votes가 7 shares & 4 votes로 달라진다고 함.)
- 학회계획위원회 : IVC-21개최국과 장소에 대한 심의를 4개국에서 제출한 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갖고 검토한 후 순위(스웨덴, 이태리 등)를 매겨 전체회의에 상정함.
- 학술위원회 : EVC-2014 국제학회를 9월 8-12일 포르투갈에서 개최하는 것 승인하고, 아울러 VASCCA-7 국제학회를 2014년 9월말에서 10월 초 대만진공학회가 주관하여 타이페이에서 개최하는 것을 승인함.

(2) IUVSTA GM-18 & EGM2013 회의 (9월 11일)**주요 결정사항**

- 한국진공학회, 중국진공학회, 호주진공학회 등이 요청한 Share values 변경안 (KVS: 150유로/1 share values × 7 shares = 1,050유로)을 승인함. 또한 지난 3년 간의 ECM회의 결정사항 보고하고 추인 받음.
- 새로운 IUVSTA 회원국으로 아르헨티나 진공학회가 가입신청을 해와 이를 승인함.
- 바이오인터페이스 분과의 신설을 공식 승인함.
- 2013-2016년 3년간 활동할 각 진공학회에서 추천한 Councilor, Alternative Councilor 및 분과별 대표자 승인함.
- International Institute of Vacuum Science를 파키스탄에 세우는 것 승인함.

(3) 117차 IUVSTA ECM 회의 (9월 13일)**주요 결정사항**

- 2013~2016년 Trenium 신규 Councilor 및 Alternative Councilor간 상견례 및 IUVSTA 신입 집행부 소개.
- 2019년 개최예정인 IVC-21학회 개최지로 스웨덴 말뫼시가 선정됨.
- 2014년 중으로 표면공학 분과가 주관하는 국제워크숍을 한국(성균관대 한전건 교수 제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International Vacuum Congress (IVC) 국제학회는 IUVSTA가 매 3년마다 주관하여 개최하는 학회로 1971년도 이후로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lid Surfaces (ICSS) 국제학회와 같이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나노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로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science and Technology (ICN+T) 국제학회도 함께 동시에 개최해 오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머드급 국제학회이다. 2013년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IVC-19/ICSS-15/ICN+T2013 국제학회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학회 홈페이지(www.ivc19.com)를 방문하면 학회 프로그램이나 초록집 및 진공전시회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총 접수 초록수: 세계 73개국으로부터 총 초록수가 1,824편이 접수됨 (노벨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한 4편의 기조강연, 10편의 keynote 강연 및 110편의 초청강연, 900편이 넘는 구두발표 논문을 위해 총 103개 세션이 15개의 세션장에서 동시에 개최되었고, 3회에 걸쳐 총 800편이 넘는 논문이 포스터로 발표가 되었음).
- 총 등록자수: 2,500명 정도
- 총 전시참여 부스수: 110개 회사 120개 부스가 설치 운영됨.
- Total burget: 1,270,000유로
- 기타: 5번의 tutorials 및 3번의 short courses가 개최됨.

이제 2년 뒤인 2016년이면 우리들의 한국진공학회가 설립된지 25년이 된다. 학회설립 사반세기가 되는 뜻깊은 해에 한국진공학회 역사상 최초이자 본인이 학회유치 계획서를 만들고 3회나 IUVSTA-ECM 회의에 참석하여 유치계획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여 유치에 성공한 IVC-20/ICSS-16/ICN+T2016 국제학회가 우리들의 한국진공학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척 벅차고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 한국진공학회가 IVC-20/ICSS-16/ICN+T2016 국제학회를 과연 잘 치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면 너무 걱정이 되고 잠도 잘 오지 않는 날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동안 위기때마다 슬기로운을 발휘하여 하나로 똘똘 뭉쳐 수 많은 난관과 역경을 이겨내 온 저력의 민족이므로 2016년 IVC-20/ICSS-16/ICN+T2016 국제학회를 우리 한국진공학회 모든 회원이 한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분명히 성공적으로 모든 학회행사들을 훌륭하게 치루어 내리라 사료된다. 어느 단체든 구성원이 없으면 그 단체는 유명무실한 것이기에 우리 한국진공학회 전 회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융합학문 분야 학술단체인 한국진공학회에 그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전적인 사례는 본인이 학회 임원을 올해로 18년째 해오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이 우리 한국진공학회가 가장 발전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